

# '작은 무대, 큰 울림'...객석에 자리한 당신도 '작품의 일부'

제27회 광주소극장축제...오는 24일부터 10월20일까지

## 빛고를 8개 소극장서 13개팀 다양한 장르 공연 선사

'작은 공간, 큰 감동'을 주제로 한 제27회 광주소극장축제가 오는 24일부터 10월20일 까지 지역 극장 곳곳에서 열린다.

'광주소극장축제'는 지역 연극계의 중심 축으로 자리 잡은 연례행사로 샌드아트·매직공연·연극·뮤지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즐길 수 있는 축제다. 광주 소극장협회 소속 11개 극장과 ACC어린이극장, 미로센터가 협력극장으로 참여한다. 총 13개 참여팀이 8개의 소극장에서 각기 다른 작품으로 관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축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에서 주관하는 '제28회 베세토편제스티벌'(BeSeTo Festival)과 연계해 진행한다. 한국·중국·일본 3개국의 오리지널 작품으로 축제 프로그램을 풍성하게 구성했다.

올해 축제는 광주 전문예술단체인 '극단 논다'의 코믹연극 '당신이 집을 비운 사이'

공연으로 막을 올린다. 오는 27일부터 서구 기본좋은극장에서 한 달간 장기공연을 시작으로 공연 릴레이가 이어진다.

10월3일 ACC어린이극장에서는 박종우 청소년극장작소의 '세대소통 락뮤지컬 빨간기타'가 무대에 오른다. 세대 간 갈등과 소통, 함께 사는 사회를 주제로 하는 이연극은 아빠와 딸의 몸이 바뀌어 서로를 알아가게 되는 세대소통 휴먼감성 락뮤지컬이다.

10월5-6일에는 빛과 모래가 들려주는 '샌드아트월드' 공연과 아이들의 상상력을 무한자극하는 디아트프로젝트의 매직 페스티벌 공연 등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다.

10월12-13일 공연일번지에서는 극단 그림 일기의 연극 '두만이 태만이'가 무대에 오른다. 꿈과 현실사이에서 고민하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로, 오직 돈만 쫓는 3류 인생 두만과 축망받는 신인왕 출신이었지만 생활고로 인해 이삿짐을 나르며 지금은 3류 복서가 된



샌드아트월드 공연

대만 두 쌍둥이가 등장한다. 10월17-19일에는 극단 DIC의 연극 '늙은 부부 이야기'가 펼쳐진다.

10월5-6일 동구 미로센터에서는 극단 '마음갈이'의 연극 '사랑입니까'가 준비돼 있다. 부모와 자식 관계라면 모두 통용되는 사랑이 애증을 넘어 서로에게 갈등의 끈이 된다면 어떨까. 힘겨운 삶을 사는 부모와 자식에게 물음표를 던지는 공연이다.

10월11-12일 미로센터 무대에는 울산씨어터의 연극 '양팔저울'이 오른다. 기후변화와 환경위기에 처한 현존의 인간 군상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이야기한다.

이밖에 10월29일 지니아트홀, 극장동, 문

예정터에서는 극단지니컬처의 로맨틱코미디 '우리집세입자', 극단유피씨어터의 코믹 연극 '스위트룸719', 극단시민의 '오자', 나래아트컴퍼니의 '땡기머리' 연극이 펼쳐지며 같은 날 광주아트홀에서는 클래식, 재즈 관객들을 위한 공연이 열릴 예정이다.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 소극장에서 즐길 수 있다.

임홍석 광주소극장협회장은 "작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작품들로 가득 찬 이번 축제는 지역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에게 풍성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올 가을, 소극장에서 배우들과 함께 호흡하며 작은 공



디아트프로젝트의 어린이 매직 페스티벌(사진 위와 극단논다 코믹연극 '당신이 집을 비운 사이')

간에서의 큰 감동을 느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연 관람료는 각 3만원씩이며 패키지 45만원, 자유관람패키지는 10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문의 062-222-7008.

/최명진 기자

## 초가을, 낭만적인 인상주의 음악 향연

12일 광주시향 오티움 콘서트Ⅳ 'Impressionism'...플루티스트 박예람 협연

초가을 인상주의 시대 감성, 프랑스 음악의 정수를 선사하는 공연이 펼쳐진다.

광주시립교향악단은 오는 12일 오전 11시와 오후 7시30분 두 차례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기획공연 오티움 콘서트Ⅳ 'Impressionism'을 개최한다.

광주시향 부지휘자 김영언이 지휘와 해석을 맡고 플루티스트 박예람(사진)이 광주시향과 협연한다. 이날 공연에서는 인상주의 음악의 대표 작곡가 '드뷔시'를 비롯해 '이베르', '포레', '라벨'의 곡을 선보인다.

공연은 프랑스 인상주의 음악의 창시자 드뷔시의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으로 화려하게 시작된다.

이어 이베르의 플루트 협주곡을 플루티스트 박예람의 협연으로 들려준다. 이 작품은 당시 저명한 플루티스트였던 마리셀 모이즈의 의뢰로 작곡된 곡으로 플루트의 기교와 화려한 음색이 부각된 작품이다. 최고의 난이도를 요구하며 다양한 음악적 스타

일이 뒤섞여 독특한 분위기를 발산한다.

후반부에는 포레의 '펠리아스와 멜리장드 모음곡 op.80 중 시칠리아 무곡'을 연주한다. 1893년 물리에르의 극음악 '평민 귀족'의 일부로 작곡됐다. 이후 관현악곡으로 재편곡돼 연극 '펠리아스와 멜리장드'의 음악으로 사용됐다. 본래 '시칠리아 무곡'은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작품이지만, 우아한 리듬과 단조 특유의 애상함으로 많은 악기의 독주곡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슬프고 부드러운 첼로의 우아한 선율과 화성적 아름다움으로 포레의 작품 중 많은 사랑을 받는 곡 중의 하나다.

끝으로 라벨의 '어릿광대의 아침 노래'가 공연의



광주시립교향악단 오티움 콘서트 공연사진



광주시립교향악단 오티움 콘서트 공연사진

대미를 장식한다. 이 작품은 라벨의 '거울' 모음곡 중 가장 많이 사랑받는 곡으로, 유일하게 스페인어 제목을 가지고 있다. 스페인풍의 리듬과 관현악의 기술적인 표현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이날 광주시향과 협연하는 플루티스트 박예람은 아비뇽 오케스트라 외국인 최초 종신 수석 입단을 시작으로 생모 음악원 플루트 교수이자 벨기에 라모네 왕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석 플루티스트로서 세계를 무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연주자다.

/최명진 기자

## '열컷문학, 공씨의 글림일기'

29일까지 ACC도서관 미니전시

독서의 달을 맞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컷문학, 공씨의 글림일기' 전시가 열린다.

ACC는 오는 29일까지 도서관 이벤트홀에서 인스타툰 인기 작가이자 '우리 오늘도 살아 있네?'의 저자 공씨의 작품전을 개최한다.

인스타툰은 10컷에 제한된 글과 그림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통하는 또 하나의 문학이다. 소셜미디어의 강점을 살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K-콘텐츠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우리 오늘도 살아 있네?'는 작가 공씨의 인스타툰 '평범해서 특별한, 공씨의 글림일기' 작품을 모아 펴낸 책이



다. 콘텐츠들 만들 때 글과 그림이 균형 있게 조화되기를 바라며 '글+그림일기=글림일기'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작가는 "지극히 사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던 시간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며 각자의 이야기가 돼 사람들에게 공감할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이번 전시는 '우리 오늘도 살아 있네?'를 중심으로 용기와 위로, 가족의 사랑에 대한 작품과 'ACC를 방문한 공씨'의 새 작품으로 살아가는 모두에게 위로와 응원을 전한다. /최명진 기자

# 2024 Art Bank '예술을 선물합니다'

2024. 9. 27. (토) - 10. 6. (일) | 광주 동구 ACC디자인호텔 1층 갤러리 **작품판매전**

서석대-봄 | 27.3x19.1cm | 한지에 채색 | 2024

서석대-여름 | 27.1x19cm | 한지에 채색 | 2024

남산 그리고 보름달 | 80.5x100cm | 한지에 혼합채색 | 2019

서울야경 | 112x391cm | 한지에 혼합채색 | 2019

### 빛과 희망을 그리는 작가

나는 걱정거리가 있을 때, 삶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 높은 곳에 올라가서 풍경을 내려다보곤 한다. 복잡함 속의 한 점에 불과한 나는 그 복잡함에 어우러져 또 하나의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 결국 내 눈에 비치는 풍경은 인고의 시간이 끝난 후 완성된 환희로 가득한 환상, 환영처럼 내면의 기쁨과 편안함을 안겨준다.

이전의 작업은 열상 카메라를 통해 드러난 열을 사람의 내면으로 보고 그것을 그림으로 옮기는 일의 반복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전과 같이 작업에 사용하는 기법인 정방형의 부분들을 균일하거나 혹은 불규칙적으로 변형해 면적 크기와 형태를 표현하는 모놀 기법을 사용한다. 그 기법을 통해 색과 면, 즉 색과 공간의 변형을 통해 형태적인 시각 변형과 색의 대비를 혼용하여 표현함으로써 구체적인 색채의 대비를 통해 도시가 품은 수많은 사람, 사물들의 색채가 생명력을 발하는 순간을 포착하고 깊이있게 표현하고자 했다.

전 동민 작가

<b>개인전</b> 15회(광주, 서울)	<b>부스개인전</b> 7회	<b>아트페어</b> 16회(홍콩, 서울, 광주, 인천 등)
<b>단체전</b> 240여회(미국, 북경, 상하이, 대만, 서울, 경기, 광주, 대구, 전주, 목포)		
<b>표지</b> 2020 화성동탄아트임팩트관 굿즈 표지 선정 2020 우리은행 '남산 그리고 보름달' 표지 선정	2020 서울+문화 '서울야경' 표지 선정 2020 효성그룹 서울야경 표지 선정	
<b>소장</b>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광주시립미술관, 영은미술관, 국립공원공단, 대동문화재단, 대동제작, 탐앤탐스, 세종시청, 한국전주교수교자박물관, 몽규프로덕션, 남정보정기센터, 다은갤러리, 일호갤러리 그 외 개인소장 다수		

| 주최 | **광주매일신문·광주매일 TV** | 문의 | 광주매일신문 062) 650-2079